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중학교 교사의 직업 인식 국제비교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업무와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면서, 교직과 관련된 새로운 고충들이 표면화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함.
 - 분석은 OECD의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자료를 활용함.
 - TALIS는 교육 환경과 교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조사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도 3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OECD 국가를 포함한 총 47개 국가의 중학교(국제표준분류 2단계) 교사의 직업 인식을 분석함.¹⁾
- 설문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객관적 측면에서 좋은 직업으로 볼 수 있음.
 - 한국 교사의 임금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높고(그림 1의 1번 문항 참조), “교직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와 “가르치는 일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값 순위도 높아(그림 1의 2~3번 문항 참조) 한국 교사의 교직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임.
- 하지만 교사가 느끼는 교직에 대한 실망감 역시 한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 후회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는 한국이 조사 국가 중에서 셋째로 높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라는 물음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체 47개 국가 중에서 36위로 낮음(그림 1의 4~5번 문항 참조). 이는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한국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꼈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이 한국 중학교 교사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임.

1) 2018년 3차 TALIS 조사에서 한국은 2,931명의 중학교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음.

- 한국 교사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표 1 참조).
 - 한국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 편이지만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는 평균적인 수준임.
 - 반면 교직 업무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한국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 47개 조사 국가 중에서 상위 셋째를 기록함. 즉, 한국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의 강도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 1〉 교사가 인식하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부정적 경험 빈도의 평균값과 순위

(단위: 점)

“이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래 상황들이 어느 정도로 발생합니까?”	OECD 평균값	한국	
		평균값	순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2.57	2.55	21
“나의 업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97	2.30	3

주: 1) 문항은 4점 척도로 조사됨. 1=전혀 발생하지 않음, 2=어느 정도 발생함, 3=상당한 정도로 발생함, 4=아주 많이 발생함.
 2) 순위는 47개국 중 한국의 내림차순 순위를 나타냄.

자료: OECD,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원자료, 2018.

- 〈표 2〉에서는 한국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함.
 - 한국 교사가 응답한 스트레스 원인 간 평균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가장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면, 과도한 행정 업무(18위), 교실 질서 유지(14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7위), 상급 기관의 요구 조건 대응(20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남. 위 요인들은 수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며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을 제외하면 대체로 OECD 평균 정도 수준임.
 - 반면 스트레스 요인별 평균값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위치하는 요인은 “학생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언어 폭력”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으로 나타남. “학생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언어 폭력”은 상위 다섯째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한 스트레스 요인이기는 하지만, 평균값은 2.03으로 한국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아님. 반면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은 상위 일곱째이면서 평균값도 2.42로 한국 교사들이 느끼기에도 주된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대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요인은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수업 조정”, “과도한 수업 준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임”, “과도한 채점 업무” 등으로 나타나, 한국의 교사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수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자체에 대한 한국 교사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판단됨.

〈표 2〉 교사가 인식하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

(단위: 점)

“이 학교에서의 직무를 생각했을 때, 다음의 사항들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됩니까?”	OECD 평균값	한국	
		평균값	순위
과도한 수업 준비	2.21	1.88	40
과도한 수업 시간	2.02	2.03	22
과도한 채점 업무	2.33	1.93	43
과도한 행정 업무	2.53	2.59	18
결근한 교사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	1.96	1.63	39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임	2.40	2.11	40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	2.28	2.46	14
학생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언어 폭력	1.57	2.03	5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제반 요구 조건 대응	2.32	2.38	20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	2.23	2.42	7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수업 조정	2.11	1.38	46

주: 1) 문항은 4점 척도로 조사됨. 1=전혀 안 됨, 2=어느 정도 됨, 3=상당한 정도로 됨, 4=아주 많이 됨.

2) 순위는 OECD 평균을 제외한 47개국 중 한국의 내림차순 순위를 나타냄.

자료: OECD,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원자료, 2018.

- 결론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경력을 쌓은 교사들이 조기에 퇴직하여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수업 외적인 요인들이 불러오는 업무 스트레스를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TU**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